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축일

임금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왕 대축일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임금님은
당신의 목숨을 내어 놓고 모든 이들의 종이 되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다스리는 임금님이시며,
하느님 앞에서 철저히 당신 자신을 내어 놓으심으로써
모든 이들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는 임금님이시다.



오늘 미사를 드리면서
종이 모습으로 오신 참된 임금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 역시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참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청하도록 하자.






성서 주간

한국 천주교회는 1985년부터 그리스도왕 대축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을 '성서 주간'으로 정하여 지내고 있다.

성경이 없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어려울 것이기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으로 모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항상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해야 한다.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우리가 세상에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사도로 잡리 잡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이번 한 주간 동안 더욱 기도하자.

시비를 가리는 목자

“ 나 이제 내 양 떼를 찾아서 보살피려 주겠다.
... 흩어진 그 모든 곳에서 내 양 떼를 구해 내겠다.

(에제 34,11-12)

하느님께서서는 당시 바빌론 유배로 인하여 뿔뿔이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보살피시겠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해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하신다.

“ 그러나 기쁨지고 힘센 양은 없애 버리겠다.
나는 이렇게 공정으로 양 떼를 먹이겠다. (에제 34,16)


하느님은 억울하게 당하는 이들에게는 위로를 주시지만,
당신 뜻을 거스르며 남을 억압하는 이들에게는 처벌을 내리시는 분



양과 염소

“ 나 이제 양과 양 사이,
숫양과 숫염소 사이의 시비를 가리겠다. (에제 34,17)

“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왼쪽에 세울 것이다.
(마태 25,33)



이 말씀은 염소가 양보다 나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이 되면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분명히 드러나고 갈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

실제로, 목자는 추위를 타는 염소는 우리 안쪽에,
더위를 많이 타는 양은 우리 바깥쪽에 따로 구분해서 넣고 재우기에
양과 염소를 둘로 가르는 행위 자체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뿐이다.



왕권을 지니고 오시는 그리스도

“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권세와 모든 권력과 권능을 파멸시키시고 나서
나라를 하느님 아버지께 넘겨 드리실 것입니다. (1코린 15,24)

왕권을 지니신 그리스도이지만

그 나라는 처음부터 아버지의 나라였기 때문



“ 아드님께서도 모든 것이 당신께 굴복할 때에는,
당신께 모든 것을 굴복시켜 주신 분께 굴복하실 것입니다.

(1코린 15,28)

예수님은 하느님 앞에서 철저히 당신을 낮추시는 겸손한 임금입니다.

가장 작은 이들에게 해 준 것

“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마태 25,40)

재판관이신 그리스도가 사람들을 가르는 판단 기준은
우리가 가장 작은 이들을 어떻게 대했느냐이다.
곧 그들을 주님 대하듯이 대한 이들은 구원을 얻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베풀지 않은 이들을 파멸할 것이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세상 마지막 날에 재판관으로 오실 임금이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분을 만나기 위한 준비를 지금, 여기에서부터 해 나가야 하겠다.

나는 어느 쪽에 서게 될 것인가?